죽음으로 읽는 서양 근현대 철학사 제3강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는 초를 껐고 옆쪽으로 누웠다. “장은 괜찮아. 소화가 되고 있다구.”

갑자기 그는 익숙한, 희미한, 찌르는 듯한, 집요한 고통을, 그리고 입 속에서는 똑같은 역겨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감을 잃었다. 현기증이 그를 엄습했다. “오 하느님, 오 하느님!” 그는 소리 질렀다. “아직도! 아직도!... 결국 병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였어!”

불현듯, 그의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다. “장, 신장...”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장이나 신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라구... 그래, 삶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삶이 사라져가고 있어. 삶이 사라져가고 있고 난 그것을 붙잡아 둘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 나 자신을 속일 필요가 있을까?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만 빼놓고 모두가 다 분명히 알고 있어. 이제 문제는 몇 주 또는 며칠이 더 남아있느냐일 뿐... 어쩌면, 지금 당장일지도 몰라. 어둠이 빛을 대체해 버린거지. 나는 여기에 있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사라져가고 있다구! 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그의 몸은 얼어붙었고, 그의 숨은 멈췄다. 그가 유일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아무 것도 없을 거야.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면, 나는 어디에 있게 되는 거지? 이것이 죽음일까? 아니! 나는 죽고싶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초를 붙이려고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찾으려다 촛대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다시금 잠자리로 뛰어들었다. “왜?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거지?” 어둠 속에서 크게 눈을 치켜뜨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죽음. 그래, 죽음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 그들은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나를 동정하지도 않아. 그들은 즐기고 있다구! (문틈으로 그는 멀리서 들여오는 목소리와 상투적인 언사를 들었다.) 자신들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죽어가고 있어. 멍청한 것들! 우선은 내 차례이고, 다음은 그들 차례이지. 그런데 웃고들 있구만. 교양없는 것들!” 그는 화가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공포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는 다시 한 번 몸을 일으켰다.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단 말이지. 진정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 내 병이 시작되었을 무렵 옆구리를 치면 나는 아주 경미한 고통만 희미하게 느꼈을 뿐 아무런 특별한 것도 느끼지 못했었어. 그 후 이게 악화되었었지. 그 후 의사, 우울증, 불안, 그리고 또 다시 의사. 그리고 점점 더 나는 심연에 가까워져갔었지. 기력은 점차 쇠하여 갔었고. 점점 빨리. 점점 빨리. 그렇게 나는 기진맥진하게 되어버렸어.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지. 이게 죽음이야. 그리고 나는 장만 생각했어. 나는 장을 낫게하는 것만 생각했었고, 이게 죽음이야! 그런데 이게 죽음이라고?” 공포가 다시 시작되었다. 헐떡거리면서 그는 몸을 굽혔고, 성냥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맡 탁자에 부딪혀서 다쳤다. 그러자 그는 화난 몸짓으로 탁자를 거칠게 밀었고 탁자는 뒤집히고 말았다. 숨도 못 쉴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등을 대고 누워 공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Léon Tolstoï, *La mort d'Ivan Ilitch*, La Bibliothèque électronique du Québec, pp. 77-79.)
(http://beq.ebooksgratuits.com/vents/Tolstoi-Ilitch.pdf)

교도소 부속 사제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때였다. 그를 보았을 때 나는 살짝 떨었다. 신부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그가 평소에는 다른 시각에 오곤 했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이 방문이 내 상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전히 우정어린 방문이며, 자신은 내 상소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 침대에 앉으면서 자기 곁에 와서 앉으라고 내게 권했다. 나는 거절했다. [...]

그는 갑자기 머리를 들어 올리더니 나를 마주 보았다. “왜 당신은 내 방문을 거절합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신부는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했고, 나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 물어 볼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은 물음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는 뒤로 돌아서 벽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펴서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거의 내게 말하고 있지 않은 듯한 태도로, 그는 가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확실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아 왔다고 내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신부는 나를 응시하며 물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다고 나는 대답했다. 어쨌든 나는 실제로 나와 관계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아마도 확신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나와 관계가 없는 것에 관해서는 완전히 확신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부가 내게 말한 바로 그것이야말로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신부는 내게서 시선을 거두었으나 여전히 자세를 고치지 않고, 혹시 내가 과도한 절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고 그에게 설명했다. 그저 나는 두려움이 있을 뿐인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과 같은 경우에 처해 있었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였다고 나는 인정했다. 그들이 신에 도움을 청한 것은 또한 그들이 그럴 만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에 관해서 말하자면 누가 나를 돕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또한 바로 그 시간이 내겐 없었다. 즉 나와 관계가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시간말이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짜증이 난 듯이 움직였지만, 그는 자세를 바로하고 사제복의 주름을 매만졌다. 다 마치고 났을 때 그는 나를 “나의 친구(mon ami)”라고 부르면서 내게 말을 걸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사형수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었다. 그의 생각에 우리는 모두 사형수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은 다른 것이며, 또 게다가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끊었다. “물론입니다.” 그는 동의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오늘 죽지 않는다면, 당신은 보다 나중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음이 제기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실 건가요?” 나는 지금 내가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그대로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이 내게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또 당신이 완전히 죽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단 말인가요?” “네.” 내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나를 동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것을 견뎌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

그는 나의 상소는 수리되어지겠지만, 나는 내려놓아야만 할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자기의 확신을 내게 말했다. 그에 따르자면, 인간들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의 심판이 전부였다. 나는 나에게 선고를 내린 것은 바로 인간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심판이 내 죄를 씻어준 것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나는 죄인이고,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더 이상 아무 것도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 순간 신부가 다시 일어났다. [...]

그는 쇠창살 사이로 하늘을 응시했다. “나의 아들이여,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볼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뭘 보죠?"

신부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아주 지친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이 모든 돌들은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요. 나는 불안 없이 이것들을 바라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지라도 이 돌들의 어두움으로부터 신의 얼굴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라고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얼굴입니다."

나는 약간 흥분했다. 몇 달 전부터 이 벽들을 바라보았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내가 이보다 더 잘 아는 것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었다. [...] 그리고 어쨌든 나는 이 축축한 돌로부터 나타는 것이라곤 아무 것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사제는 일종의 슬픔과 더불어 나를 바라보았다. [...] 그는 매우 빠른 어조로, 나를 포옹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인지를 내게 물었다. "아니오." 나는 대답했다. 그는 돌아서서 벽을 향해 걸어갔고, 벽 위로 그의 손을 천천히 갖다 대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까지 나 이 땅을 사랑하십니까?"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것도 대답 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선 채로 꽤 오랫동안 그러고 머물렀다. 그가 있는 것은 참기 힘들었고 나를 성가시게 했다. 나는 그에게 떠나 달라고, 나를 내버려 둬 달라고 말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내게로 돌아서면서 일종의 폭발과도 같이 소리를 질렀다. "아니오.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다른 삶을 소망했던 적이 있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당연히 그랬던 적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아주 빨리 헤엄을 치는 것이나, 또는 가지런히 난 치아를 갖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똑같은 질서에 속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부는 내 말을 가로막고 내가 그 다른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알기 원했다. 그래서 나는 외쳤다. "이 삶을 회상할 수 있는 어떤 삶",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는 이런 대화가 지긋지긋하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다시 신에 대해서 내게 말하길 원했지만, 나는 그를 향해 나아가서 내게는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에게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나는 신과 더불어 시간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는 내가 왜 그를 '나의 아버지(mon père)'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monsieur)'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물으면서 화제를 바꾸려고 했다. 이것은 나를 짜증나게 했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그는 내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터져 버렸다.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대기 시작했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어 대었으며,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성직자복의 깃을 움켜쥐었다. 나는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두근거림과 더불어 내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을 전부 그에게 쏟아내어 버렸다. [...] 나는 이 모든 것을 외치느라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이미 사제를 내 손에서 떼어놓은 간수들은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부는 그들을 진정시켰고,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돌아섰고, 떠나갔다.

신부가 떠나고 난 후 나는 진정되었다. 지쳐 버린 나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얼굴 위의 별들(des étoiles sur le visage)과 더불어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들판에서 나는 소리들이 나에게까지 올라왔다. 밤의 냄새, 흙의 냄새, 그리고 소금 냄새가 내 관자놀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 잠든 여름의 놀라운 평화가 마치 밀물처럼 내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밤의 경계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그 소리는 이제까지는 나와 무관했던 어떤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나는 왜 엄마가 삶의 끝에서 '약혼자'를 갖게 되었었는지를, 왜 그녀가 재시작이라는 놀이를 했었는지를 이해한 듯하다. 그곳에서, 그곳에서도 역시, 삶들이 꺼져가는 양로원 주위에서 저녁은 쓸쓸한 휴전과도 같았던 것이다. 그토록 죽음에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엄마는 해방되어 있다고, 또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낼 각오가 되어있다고 느꼈던 것이 틀림없다. 누구도, 그 누구도 어머니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권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낼 각오가 되어있다고 느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내게서 악을 없애주기라도, 희망을 비워내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이 별자리와 별들로 가득 찬 이 밤 앞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부드러운 무관심을 향해 열렸다. 세계가 그토록이나 나와 비슷하다고, 결국 그토록이나 형제같다고 느끼면서, 나는 행복했었다는 것을, 또 여전히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수되기 위해, 고독을 덜 느끼기 위해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사형 집행일에 수많은 관중들이 있기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증오에 찬 고함소리로 나를 맞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Albert Camus, *L'étranger*, 1942, pp. 93-98.)
(http://classiques.uqac.ca/classiques/camus_albert/etranger/etranger.html)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갖는 신앙을 '관심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섀프츠베리(3rd Earl of Shaftesbury, 1671~1713)는 종교의 본성을 신 그 자체에 대한 '무관심적 사랑(disinterested love)'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관심이란 자기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동기로부터 유발된 관심이기에, 대상에 대한 관심은 곧 대상을 자기이익의 도구로 이용하고자하는 동기로부터 유발된 관심, 즉 대상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관심은 자기이익적 본능에서 비롯된 도구적 가치에 대한 계산이나 예상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섀프츠베리의 무-관심적 사랑은 대상에 대한 강한 몰두, 혹은 집중인데, 이러한 몰두 혹은 집중은 오직 대상 그 자체 또는 대상의 내재적 가치에만 몰두한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무관심적 사랑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그의 존재 자체의 위대함 때문인 것이다.

2. 칸트와 죽음의 문제

***두 세계론**

칸트는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을 연결시키고자 시도했는데, 그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 정신의 자율성을 위한 공간을 열어줄 수 있었다. 칸트는 인과율이 과학의 필연적 전제라고 가정했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칸트는 "고기 굽는 꼬챙이를 돌리는 요리사의 자유(Freiheit des Bratenwenders)"와도 같은 자유의 이념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이 단지 자연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로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칸트가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을 연결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인과율의 타당성을 확증해주는 동시에 인간적 자유의 가능성도 보존하는 것이었다.

칸트에 의하면, 오성의 형식인 범주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관의 형식인 공간과 시간은 바로 우리들로부터 유래한다. 즉 인간 주체가 이러한 형식들을 현실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이 능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칸트의 이론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정신의 구조(색안경)에 따라 사물들과 관계한다.

회의론으로부터 과학을 구하는 동시에 합리적 과학으로부터 종교적 신앙을 구하려 했던 칸트의 이중적 과제는 그 답을 두 세계론(Zweiweltenlehre) 속에서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편으로, 칸트는 자신의 이론철학 속에서 자연을 하나의 현상 세계, 즉 현상계로 환원시켰다. 다른 한 편으로, 칸트는 종교 혹은 신앙을 도덕(률)에 환원시키는 가운데 도덕(률)을 이론이성인 사변 이성의 영역 바깥에 위치시켰다.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철학)은 사변이성이 아니라 실천이성과 관계하는 것이다.

칸트는 세 개의 이성 개념, 즉 영혼, 세계, 그리고 신에게 규제적인 기능을 부여한다. 즉 이 세 가지 이념들은 우리의 앎에, 인식에 질서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념들은 오성의 형식인 범주와는 달리 우리의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념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경험의 한계 속에서, 즉 감성적 표상의 영역 속에서 주어질 수 없다. 만일 이성이 이념을 사유하는 것은 오직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초월함으로써만 가능하다면, 이념 역시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초월하는, 현상적 세계를 초월하는 초월적(transzendent) 개념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이나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객관적 인식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념을 사변이성에 의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넘어서고자 하는 우리 본성의 지워질 수 없는 경향/성벽은 이념에 이르는 다른 가능한 접근 통로, 즉 실천 이성 내에 근거지어져 있는 접근 통로를 지시한다. 칸트는 도덕 철학을 다루면서 이론 이성(시변 이성)에서 실천 이성으로 관심을 전환하게 된다. 그런데 실천 이성에서 문제되는 것은 앎이나 인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도덕률(도덕 법칙)과 실천 이성**

칸트는 도덕 법칙, 즉 도덕률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의 체험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무감은 우리의 욕망이나 성향에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인 선이란 바로 의무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인 선은 어떻게 가능한가?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의무감에 의해서 행해지는 선한 의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선해지기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지가 의무감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한다. 달리 말해서, 의지와 의무감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무조건적인 선이 가능한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의무감에 의해 행해지는 선한 의지 외에 다른 이유 또는 다른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선한 행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칸트는 윤리에 있어서 반-행복주의를, 반-보상주의를, 반-도덕 감정주의를 제시한다. 즉 그는 도덕적 행위의 목적이 바로 이 도덕적 행위 그 자체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도덕적 행위의 외부에 있을 수 있는 여타의 목적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칸트는 우리가 신에게 상을 받기 위해 선하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견해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또한 도덕적 행위가 개인적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고대의 이론에도 반대한다. 그리고 칸트가 도덕 법칙을 정언명령(kategorischer Imperativ)이라고 칭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였다. 칸트에게 있어서 윤리학은 가언 명령(hypothetische imperativ)의 학문이 아니다. 그에 의하면, 오히려 윤

리학은 정언 명령의 학문이다. 즉 윤리학의 근저에는 의지주의적인 신이나 원리적으로 변화 가능한 도덕 감정 같은 타율적 요인이 아니라 실천 이성의 자기 입법이라는 자율(Autonomie)에 힘입은 무조건적 명령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언 명령은 행위 바깥에 있는 그 어떠한 목적과도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의무를 지워주는 그러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의 원칙은 먼저 보편화 가능성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도덕의 원칙은 순수 형식적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의 원칙에 부과하는 의지 혹은 실천적 이성은 자율적이다.

***요청되는 것들: 자유, 영혼 불멸, 신**

칸트에 의하면 실천 이성의 정언 명령이 합리적이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실천 이성에 의해서 타당하게 자명한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그는 정언 명령에 의해서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유, 영혼 불멸, 그리고 신을 요청한다. 자유가 요청되는 이유는 도덕률은 자유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은 자유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자아는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불멸하는 것으로 여겨져야만 한다. 왜 자아의 불멸이, 영혼의 불멸이 요청되는가?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도덕률은 의지와 자아의 완전한 일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일순간에 성취시킬 수 없는 도덕률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일치 인간의 자아가 무한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영혼의 불멸은 최상선(das oberste Gut)의 실현을 위해서 요청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칸트에게 있어서 영생을 위해서 최상선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상선을 위해서 영생이 요청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도덕률은 신의 존재를 믿을 것을 요구한다. 무조건적인 도덕률, 즉 정언 명령은 의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원칙이다. 그렇지만 실천이성적 의지의 전체적 대상은 최고선(das höchste Gut/summum bonum)이며, 최고선은 두 가지, 즉 덕(도덕률과 완전히 일치하는 의지=최상선)과 그 덕에 합당한 행복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즉 최고선은 덕(최상선)과 행복의 일치(die Identität von Tugend und Glückseligkeit)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최고선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고선은 덕과 행복의 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는 자연의 창조주인 신이 없다면 획득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도덕률 그 자체 속에는 덕과 행복을 연결시켜 줄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영생이라는 내세에서의 보상을 위해서만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은 참된 도덕적 행위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도덕적 행위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덕 법칙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즉 최상선의 실현을 위한 영혼 불멸의 요청과 최상선의 실현을 위한 신의 요청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동기가, 의미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칸트는 신을 도덕에 환원시키려고 했던 것인가? 즉 그는 신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대신에

도덕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 인간은 신을 경험할 수 없기에, 그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신앙에 대한 결단은 앎이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그런데 신앙을 향해서 결단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신앙에 충실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신의 뜻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신처럼 되어야만 한다. 칸트는 인간을 실천이성의 입법자로 승격시키는 가운데 신의 자리로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성화(Heiligung)의 문제였다.

"Zwei Dinge erfüllen das Gemüt mit immer neuer und zunehmender Bewunderung und Ehrfurcht, je öfter und anhaltender sich das Nachdenken damit beschäftigt: *Der bestirnte Himmel über mir und das moralische Gesetz in mir.*"(*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Kapital 34, Beschluß).
(사유가 더 자주 그리고 더 줄기차게 그것들에 몰두하면 할수록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증가하는 경탄과 경외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